"우리숲에서 미래목을 키우듯, 우리사회의 미래목을 키웁시다"

이은욱 • 한그루녹색회 회장

푸른숲선도원 여러분들, 새해 인사 올립니다. 지난해는 우리 청소년들이 숲을 이해하고 숲을 사랑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더불어 푸른숲선도원이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청소년녹색교육센터 시범 프로그램인인 산림학교 개최에 이어, 1천여명의 푸른숲선도원들이 모여 비전을 나누고 숲을 배웠던 제1회 숲사랑 전국대회 개최 등은 참가자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또 교육장 조성과 숲속학교 운영, 각종 숲관련 교육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푸른숲선도원을 성장시켜온 회원 여러분들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참가 학교와 산림청 관계자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7년이 밝았습니다. 갈수록 전지구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 때, 건강한 국토와 아름다운 숲을 미래 세대에 남겨주어야 한다는 과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푸른숲선도원은 숲에서 미래목을 키우듯 미래의 주인이 되는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사회의 미래목으로 키우는 과제를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나갈 것입니다. 숲과 자연을 통해 건전한 사고방식을 배우며, 진취성과 도전의식을 갖춘 건강한 미래목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뒷받침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열정적으로 계획하고 소원하는 사업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